

# 상식으로부터 떠나라

“**연** 심히 일한  
 당신, 떠나  
 라!”

어느 CF에 등장  
 했던 문구 하나를  
 그대로 옮겨보자.

“신선한 아이디어  
 를 원하는 당신, 상  
 식으로부터 떠나라!”

상식으로부터 떠나라  
 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릴 사  
 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아이  
 디어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 하고, 그러나 유  
 감스럽게도 이런 생각으로는 신선한 아이디  
 어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상식은 마치 거대한 울타리와 같다. 그것  
 도 아주 높고 견고한 울타리.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하는 그 ‘신선한 생각’은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상식의 울타리는



매우 넘기가 힘들다.

“나는 답답하고 고루한 사람이 아니다.  
 언제든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  
 체가 상식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 자신이 상  
 식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야 비로소 상식으로  
 부터의 탈출이 가능한 것이다.



상식은 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이다. 식사는 식탁에 앉아서 해야하고, 용변은 화장실에서 봐야 하며, 극장이나 공연장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어서는 안되며,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하늘로 솟구치지 않는 것이라는 아주 당연한 것들이 모두 상식인 것이다. 이런 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에 범위를 정하고, 상상의 힘을 죽인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상식에서 벗어날 힘이 있다면 이 해답을 발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영영 헤매게 된다.

영국 탄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이야 전기가 발전해 족히 수백 미터의 탄광까지 밝은 빛을 비추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기름 램프에 의존해서 작업을 해야만 했다. 당

시에 사용하던 램프는 모두 유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했다.

유리로 만든 램프가 부주위로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유리가 깨지면서 뿜어낸 불꽃이 탄광내에 가득 찬 가스와 반응해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곤 했다.

집집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는 소리가 이어질 정도였다. 멀쩡하게 아침을 먹고 나선 사람들이 느닷없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니 그 심정이야 오죽했겠나.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루를 꼬박 일해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탄광은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나 마찬가지였다. 농사를 지을 땅도, 가축을 키울

목초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탄광은 마지막 희망이나 마찬가지인 썸이었다.

탄광이 개발되고 점점 땅 밑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가스가 유출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고, 갱도가 깊으니 그만큼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다.

결국 탄광촌에서는 거대한 현상금을 걸고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당시 최고의 기술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B씨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

B씨는 난감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탄광에서 켤 수 있는 등불이라는게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신만을 믿고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가난한 탄광촌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 말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가스가 가득한 동굴에서도 안전한 등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리 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아무곳이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가스로부터 불꽃을 보호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

“빛은 가로막지 않고 가스는 차단하는 것, 유리가 제일 좋은데... 이걸 쉽게 깨지니... 깨지지 않는 유리는 없는 걸까?”

그는 한동안 깨지지 않는 유리를 찾아 헤

맸다. 아주 두꺼운 유리램프를 구해보기도 하고, 색깔있는 유리를 만든다는 장인을 찾아가 갖가지 색소를 넣은 유리로 실험도 해봤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어둡고 좁은 탄광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도 멀쩡할 유리는 세상에 없었다.



물론 그가 유리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었다. 깨지지 않고 빛을 통과하는 재료로 철망

을 떠올려봤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다. 철망의 틈새로 가스가 드나들면 유리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기체인 가스가 철망을 통과한다는 사실은 그에겐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깨지지 않은 유리 찾기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고된 시간이 한달 여가 흐른 때였다. 아직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고, 그는 거의 절망상태였다.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봤지만 허사였다. 마지막 남은게 있다면 철망을 이용한 방법이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될 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래 내가 삼라만상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는지 몰라”

그는 철망을 이용해 램프를 만들기로 작정했다. 여전히 그의 상식은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램프에서 유리관을 벗겨내고 촘촘한 철망으로 심지 주위를 둘러쌌다. 마지막 철망의 이음새를 정리하면서 그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만약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기대에 부푼 탄광촌 식구들에게 실망만 안겨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무리를 끝내고 그는 불을 붙인 램프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부채를 집어 들었다.

만약 바람에도 불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었다. 바람의 영향을 받

면 철망 안과 밖은 다른 공기의 흐름에 의해 지배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펄럭펄럭 두 번째 부채 끝에서 강한 바람이 일었지만 불꽃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부채를 움직였지만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 가는 철망에 미세한 공기막이 형성되어 내부와 외부가 전혀 다른 영역으로 구분된 것이었다.

‘성공이다’

그의 가슴속에서 바람이 일렁거렸다.

성공 소식을 전해들은 탄광촌은 기쁨에 젖어들었다. 그 동안의 고생을 완전히 보상받은 듯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광용 램프는 영국의 역사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탄광촌의 슬픈 울음소리는 눈에 띄게 줄었고, 능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만약에 B가 기체는 작은 틈도 자유롭게 통과한다는 평범한 상식에 얽매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상식은 생각의 날개를 묶는 족쇄의 역할을 한다.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도 상식에 부딪히면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린다. 이때는 좀더 과감하게 날아오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팀장  
왕연중記

발·특2005.10